

태국의 지역 갈등에 대한 이해 - 동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조 홍 국*

요 약

태국의 동북부 문제 즉 이산(Isan) 문제는 동북부 지역과 태국 중앙정부간의 경제적 문제 외에도 문화적 갈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 태국 정부는 1960년대부터 동북부 지역의 경제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등 이 지역을 국가에 통합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통합정책은 동북부의 지역 갈등이라는 현실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며 그것도 불과 수십 년의 역사를 갖고 있을 뿐이다. 그에 비해, 이산 문제는 라오(Lao) 계통의 동북부 주민들과 중부 타이인 즉 시암인(Siamese)들간의 수백 년에 걸친 정치·경제·문화적 관계의 배경을 갖고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그 관계를 통해 이산 정체성이 형성되었다는 점인데, 이 이산 정체성은 이산 지역적 정체성과 태국 국민적 정체성이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지닌다.

주제어 : 동북부 지방, 이산(Isan) 정체성, 지역주의

I. 서 론

태국은 크게 네 지방으로 구분된다. 방콕을 중심으로 한 중부 태국, 말레이반도 쪽의 남부 태국, 치앙마이를 중심으로 한 북부 태국, 그리고 동북부 태국 등이 그것이다. 이 지방 개념들은 행정 단위가 아니다. 이들은 일차적으로는 지리적 구분에 의한 것이지만, 거기에는 민족적 및 문화적 함의가 있기도 하다. 즉 남부는 보다 말레이 및 이슬람적이고, 북부는 보다 고산족들의 세계이고 또 미얀마 문화의 영향을 보다 많이 받은 곳이며, 중부는 보다 타이(Thai)적이고, 동북부는 보다 라오(Lao)적인 지방이다. 태국 사람들 중에는 네 지방의 이러한 민족적 및 문화적 함의에 대해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자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에게나 위의 지방들과 관련하여 정치경제적 및 사회문화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함의들은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이 글의 연구 대상인 태국 동북부는 위의 네 지방 가운데 가장 넓고 인구도 가장 많은 곳이다. 그래서 태국 정부측의 입장에서나 정당정치적 차원에서 볼 때 동북부는 가장 중요한 지방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동북부는 태국에서 가장 가난한 지방이기도 하다. 이 점은 태국 정부로서도 동북부에 대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겠지만, 무엇보다도 동북부에 사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지역과 중앙정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되어 왔다.

그동안 태국에 대한 이해는 대개 방콕을 중심으로 한 중부에 집중되어 왔으며, 그에 따라 정치와 경제 그리고 문화와 사회에 관한 논의는 자연히 중부 타이인들의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태국에 대한 바른 이해는 다른 지방들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중부와 여타 지방간의 정치·경제·문화적 관계가 제대로 파악되어야 태국 사회 전체의 구조와 성격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한 이 글은 태국의 지방들 가운데 매우 중요한 동북부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동북부는 ‘이산’(Isan)이라고도 불린다. 그래서 동북부 문제는 ‘이산 문제’라고도 불린다. 이산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이산 지역과 태국 중앙정부간의 경제적 문제 외에도 문화적 갈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 이산 문제는 태국 정부측의 시각과 이산 지방의 시각 등 두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태국 정부는 1960년대부터 이산 지역의 경제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등 이 지역을 태국 국가에 통합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태국 정부 혹은 태국 정부의 이해관계와 가장 밀접한 시암인들(Siamese)¹⁾ 즉 중부 타이인들의 시각에서 이산 문제를 다룬다면, 이산 지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온전한 국가통합을 이룩하려는 태국 정부의 통합적 노력이 그 논의의 중심에 올 것이다. 그에 반해, 이산의 시각에서 이산 문제를 본다면, 태국 정부와 시암인들의 이산 지역 및 그 주민들에 대한 차별대우의 현실, 그리고 그에 대한 그들의 불만 혹은 나아가서는 적대감이 그 논의의 핵심을 이룰 것이다.

태국 정부의 통합을 위한 노력은 이산 지역주의와 갈등이라는 현실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며 그것도 불과 수십 년의 역사를 갖고 있을 뿐이다. 그에 비해, 이산 문제는 이산인²⁾들과 시암인들간의 수백 년에 걸친 정치·경제·문화적 관계의 배경을 갖고 있으며, 이산 주민들의 의식 속에서 오랫동안 자리잡아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태국 정부의 통합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최근 태국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그러나 필자는 이산 문제란 시암인들 및 태국 정부와 이산 지역간에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이며, 그 현실이 이산인들의 정체성을 통해 표출되어 왔다고 보기 때문에, 이산 문제를 이산인들의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산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산 정체성의 형성과 발전에 대한 조사에 국한시키고자 한다. 이산 문제는 경제적 문제 혹은 정치적 알력 혹은 문화적 갈등 혹은 교육 문제 등 개별적 주제나 이산 지역에서의 댐 건설을 둘러싼 분쟁 등 여러 구체적 사례를 통해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산 문제가 태국의 이해를 위해 갖는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필자는 이산 문제를 보다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이산 정체성이 어떠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으며, 특히 1932년 입헌혁명 이후 현대 태국의 정치체제하에서 태국 정부와 이산 지역간 관계를 통해 어떻게 발전하고 형성되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과 내용 및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동북부의 자연환경과 인구 및 민족 구조를 개관하며, 이를 통해 특히 동북부와 중부간 구별 및 차이의 지리적 및 민족적 배경을 살펴본다. 제3장은 중부 지방과 동북부 지방간 역사적 관계를 다루며, 이를 통해 이산 정체성의 역사적 배경을 조사한다. 제4장에서는 1932년 이후 태국 정부의 동북부 지방에 대한 차별적 정책과 그에 대한 이산 출신 정치인들의 반응이 다루어진다. 태국 정부의

1) 중부 타이인들을 ‘시암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학자들간의 오래된 관행으로,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을 여타 지방의 타이인들과 구별하여 칭하기 위한 편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필자는 이 관행에 따라 본고에서 ‘시암인’이란 개념을 사용한다. 타이인들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Siam’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민족은 크메르인들로 간주된다. 이 용어는 그후 중국인, 말레이인, 유럽인들이 받아들여 태국과 타이인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되었다. 타이인들 역시 ‘시암’ 용어를 뒤에 수용했으며 이를 ‘사얌’(sayam)이라고 발음한다. 필자는 ‘Siam’ 용어의 기원과 국제적 관행을 중시하여 이를 ‘시암’이라고 발음한다. ‘시암’의 기원에 대해서는 Titima and Uri(1997 : 24)를 참고.

2) 필자는 동북부의 주민들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동북부 타이인’(Northeastern Thai) 대신 ‘이산인’이란 용어를 쓴다. ‘동북부 타이인’이란 용어는 한편으로는 타이인들과 라오인들이 모두 넓은 의미의 타이족으로 분류되는 점과 관련하여 동북부 지방 주민들의 타이적 요소를 너무 강조한다는 측면을 갖고 있다. 즉 이 용어는 동북부 사람들의 독특한 종족성을 무시하는 경향을 갖는다. ‘동북부 타이인’ 용어는 다른 한편으로는 ‘타이’란 개념을 통해 그 주민들의 태국 국민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에 비해 동북부 주민들을 ‘라오인’으로 부르는 것도 이 지방에서의 시암인들과 다른 민족들의 요소 그리고 여러 요소들간의 수백 년에 걸친 민족적 및 문화적 혼합을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다.

정책은 특히 내부 식민주의(internal colonialism)란 개념을 통해 분석될 것이다. 제5장은 이산 정체성의 형성과 발전을 논하며, 이를 통해 이산 정체성의 구조와 성격을 분석한다. 이산 정체성은 이산인들이 한편으로는 그들의 지역주의를 형성하는 이산 지향적인 ‘이산 지역적 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동시에 타이 지향적인 ‘태국 국민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중적 정체성’(double identity)의 각도에서 분석될 것이다.

II. 동북부 지방의 지리와 민족

태국 동북부의 면적은 170,226km²로 태국 전체 면적인 514,000km²의 약 1/3을 차지한다. 동북부는 전체적으로 볼 때 비교적 완만한 고원 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해발고도 101-500m의 면적이 전 면적의 91.3%를 차지하며, 501m 이상은 8.6%에 불과하다. 이 고원 지대를 ‘코랏 고원’(Khorat Plateau)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동북부 지방은 종종 ‘코랏 고원’과 동일시되기도 한다. 북위 14도에서 18도 사이, 동경 101도에서 105도 사이에 위치한 동북부 지방은 태국의 중부 및 북부 지방과는 췏차분(Phetchabun) 산맥과 동 파야옌(Dong Phrayayen) 및 산깜뽕(Sankamphaeng) 산맥들에 의해 지리적으로 분명히 구분된다. 동남부에 위치한 캄보디아와는 파놈 동락(Phanom Dongrak) 산맥으로 경계가 나뉜다. 동부 및 동북부의 라오스와는 메콩(Mekong)강에 의해 그 경계가 구분되어 있다(Donner, 1978 : 549-551).

메콩강은 그러나 동북부의 지역적 성격의 형성과 그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있어서 코랏 고원과 태국의 여타 지방 및 캄보디아와의 지역 경계를 이루는 산맥들과는 그 의미가 사뭇 다르다. 메콩강은 강 연안 지역의 농업과 어업뿐만 아니라 하천을 이용한 수로교통을 위해서도 중요한 자원이 된다. 메콩강의 그러한 자원은 라오스 쪽의 메콩강 연안 주민들에게도 비슷한 정도로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메콩강은 태국의 동북부와 라오스를 구분하는 경계선이라기보다는 두 지역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공유되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역사학자 Ernest Renan (르낭, 2002 : 78)은 ‘민족이란 무엇인가’(Qu'est-ce qu'une nation?)의 강연에서 민족의 형성과 자연간의 상관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강들은 종족들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산들이 그들을 멈추게 합니다. 전자는 역사적 이동을 유리하게 하고, 후자는 그것을 제한합니다. [중략] 그런데 우선 이 자연적인 국경선들이라 일컬어지는 것들을 형성하는 것은 산들입니까, 아니면 강들입니까? 산이 분할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반박의 여지가 없지만, 강은 오히려 결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의 지적은 태국 동북부 지방의 민족적 및 지역적 성격의 형성과 메콩강간의 상관성에도 적용될 수 있다. 메콩강은 역사적으로 볼 때 코랏 지방과 라오스간 민족과 문화의 이동 루트가 되어 왔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메콩강이라는 하이웨이를 따라 라오인들이 메콩강 연안 지역에 정착했고, 라오스 내륙 지방과 코랏 고원 일대에 퍼졌으며, 이와 함께 라오 문화의 형성과 확산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또한 그 자체 숭한 지류들을 갖고 있는 문(Mun)강과 치(Chi)강은 동북부의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강들로서 모두 메콩강의 지류들이다. 이처럼 동북부는 경제적으로 메콩강

에게 크게 의존되어 있으며, 메콩강을 통해 라오스와 민족적 및 문화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 Keyes(1967 : 1)는 코랏 고원과 태국 쪽의 메콩강 유역과 라오스 쪽의 메콩강 유역 지역이 메콩강에 의해 나누어지기보다는 하나로 묶인 자연적인 지리적 영역을 형성한다고 말한다. 이 관찰은 태국 동북부의 민족적 및 문화적 성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산인들의 가장 중요한 생계활동은 전통적으로 농업 특히 벼농사였다. 해발고도가 비교적 낮은 지역에는 대부분 벼농사가 행해지며, 높은 곳에서는 카사바나 사탕수수, 옥수수 등과 같은 견지 작물이 재배되어 왔다(Fukui, 1993 : 19-21). 동북부 지방은 농업에서도 다른 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중부 지방에 비해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여기서는 동북부 지방의 농업에 대한 지리적 환경의 영향을 살펴본다. 코랏 고원에서 하천 일대의 저지대는 우기에 비가 많이 오면 쉽게 홍수가 나곤 한다. 그것은 일차적으로는 너무 완만하게 경사진 하천이 많은 비로 불어나는 물을 충분히 빠른 속도로 방류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코랏 고원의 강들은 강의 수위가 매우 서서히 낮아진다. 예컨대 문강의 상류에 있는 나콘 랏차시마(Nakhon Ratchasima)와 하류의 피분 망사한(Phibun Mangsahan)까지 400km 이상의 거리에서 수위 하락은 52m에 불과해, 1km당 평균 13cm도 되지 않는다. 메콩강은 더욱 심해, 위엥짠에서 팍세(Pakse)까지의 735km 거리에서 수위는 72m 낮아져, 1km당 평균 10cm도 채 안 될 정도로 낮아진다. 또 다른 문제는 이 지역 토양의 하층토가 대부분 홍적토로 되어 있어, 물이 땅 밑으로 용이하게 흡수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동북부 지방에서 농사는 주로 범람원(floodplain)과 하안단구(higher terrace) 지대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범람원은 범람이 그래도 그다지 심하지 않아 물 속에서 자라는 수도(水稻 floating rice)를 재배할 수 있는 곳까지를 말한다. 범람이 심한 곳은 어떠한 작물도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우기가 끝나면 하천의 수량은 급속도로 감소한다. 게다가 건기에 지표수와 지하수마저 급격히 말라버리면 농업용수는 물론 식수마저 부족하게 된다. 또한 동북부는 중부 지방과는 달리 바다를 끼고 있지 않은 내륙 지방이다. 비록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계절풍의 영향하에 있지만, 켈차분 산맥과 파놈동락 산맥이 여름철에 서남쪽에서 불어오는 계절풍을 차단하기 때문에 이 산맥들의 동쪽 지역에는 비그늘(rain shadow) 지역이 생겨 강우량이 현저히 적어진다(Donner, 1978 : 560-567).

이상 살펴본 것처럼, 이산인들은 우기와 건기 모두 농사를 위해서는 매우 불리한 수자원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타지방에 비해 농업 의존도가 높은 그들의 경제생활 전반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아 왔다. 동북부 지방의 농업 인구 비율은 1970년 경 78.3%로, 태국 전체 평균인 62.2%를 크게 상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구 당 경작 면적은 중부와 남부에 비해 낮으며, 단위 면적 당 벼 수확고도 전국 평균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964-1968년 5년간 통계를 보면, 태국 전체 벼 수확고 평균이 매년 1헥타르 당 1.51톤인 것에 비해, 동북부 지역은 1.08톤에 불과했다. 1966년 한 조사에 따르면, 이산 농민들의 약 70%가 자신들의 농사 및 경제 상황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다(Donner, 1978 : 597-600). 1984-1988년 5년간 지역총생산(GRP) 중 농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동북부 지방은 33.3%로 태국 전체 평균인 16.9%보다 약 2배 높았다. 이것은 당시 공업 부문 비율이 태국 전체 평균은 23.3%이었던 것에 비해 동북부 지방에서는 8.9%에 불과했다는 점과 현격한 대조를 이룬다(Suranart, 1993 : 6).

동북부 지방은 2001년 현재 총 21,312,165명의 인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방콕을 포함한 중부 지방의 인구 20,424,798명보다 많은 것이며, 태국 전체 인구 61,466,187

명의 1/3을 조금 넘는 것이다(태국의 주별 인구 및 종교 분포, 2001 : 16-17). 태국과 라오스와 캄보디아 사이에 놓여 있는 동북부 지방은 오랜 기간 이 나라들간의 정치적 관계와 민족들의 이동 및 정착과 혼혈 과정을 통해 다양하고 복잡한 종족 구성을 갖게 되었다. 이산인들은 크게 나누어 다음의 네 하위그룹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첫째 라오 위엥(Lao Wiang)으로 동북부 지방의 북부와 서부와 동남부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이들은 우돈 타니(Udon Thani) 주의 서부와 차이아퐁(Chaiyaphum) 주의 대부분 주민을 형성하며, 나콘 랏차시마 주와 로이엣(Roi-et) 주에도 상당 부분 있고, 우본 랏차타니(Ubon Ratchathani) 주와 시사켓(Si Sa Ket) 주와 쿠칸(Khukhan) 군에도 이들의 촌락 및 동네들이 많다. 두 번째 그룹은 라오 까오(Lao Kao)로, 이들은 우돈 타니의 동부에서부터 로이엣 그리고 우본 랏차타니에 이르기까지 이산 지역의 동남부에 걸쳐 거주하고 있다. 세 번째 그룹은 라오 푸언(Lao Phuan)으로, 로이엣에 그들의 촌락들이 있다. 끝으로 타이 코랏(Thai Khorat)이라고 불리는 시암인들이 있다. 이들은 전통적인 토착적 설명에 따르면 14세기 중엽에 코랏 일대에 원정 온 중부 타이인 군인들과 이 지역의 크메르 여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의 후예들로 순수한 시암인들은 아니다.

동북부 지방에는 그밖에 푸 타이(Phu Thai), 유어이(Yuai), 소(So), 색(Saek), 칼렁(Kaleung), 수어이(Soai), 카 브라오(Kha Brao), 꾸이(Kui 혹은 수이 Sui), 차오 본(Chao Bon), 크메르인, 베트남인 등 소규모의 소수 종족들이 있다. 이들은 부분적으로는 오스트로아시아(Austroasia) 어족에, 부분적으로는 오스트로네시아(Austronesia) 어족에 속한다(Donner, 1978 : 589-594). 이상의 여러 종족 그룹들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라오인들이다. Hans Luther(1970 : 5)는 1968년 경 동북부 지방에서 현지조사를 했을 때, 동북부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들은 라오인이지만 또한 태국 국민이기도 하다”(pen phu lao tae sat thai 뻬 푸 라오 땀 샷 타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보고한 바 있다.³⁾

이처럼 라오적 요소가 지배적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종족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동북부 주민들은 스스로를 종종 ‘콘 폰 므엥’(khon phuen muang) 즉 ‘원주민’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요즘 ‘이산’이 더욱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그들은 스스로를 ‘콘 이산’(khon isan) 혹은 ‘푸 이산’(phu isan) 즉 ‘이산 사람’ 혹은 ‘이산인’이라고 부르며, 자신들의 방언을 ‘파사 이산’(phasa isan) 그리고 동북부 지방을 ‘팍 이산’(phak isan)으로 칭한다. ‘이산’은 산스크리트 ‘이사나’(Īśāna)에서 파생한 것으로, 그 어원은 ‘이사’(īśa)이다. ‘이사’는 세계의 동북부 부분을 통치하는 시바(Shiva)신의 한 별칭이며, 여기에서 ‘이산’의 ‘동북부’ 의미가 유래되었다고 보여진다(Monier-Williams, 1979 : 171). ‘이산’이 이처럼 더욱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동북부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역적 및 민족적 정체성에 대해 더욱 뚜렷한 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Keyes, 1967 : 3).

3) “뻬 푸 라오 땀 샷 타이”(pen phu lao tae sat thai). 여기서 동북부 주민들이 ‘태국 국민’을 표현하는 단어로 타이어의 ‘샷 타이’(chat thai)를 사용하지 않고 라오어인 ‘샷 타이’(sat thai)를 사용하는 것은 의미 심장하다. 이것은 그들이 정치적으로는 태국 국민임을 인정하지만, 문화적으로는 얼마나 라오 지향적인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III. 중부와 동북부 지역간 관계의 역사적 배경

동북부 전체가 태국 영토의 일부가 된 것은 약 200년 전이었으며, 그것도 시암인들의 수백 년에 걸친 영토적 팽창의 결과였다. 태국 동북부의 대부분은 13세기 말 이전만 하더라도 앙코르(Angkor) 왕국의 크메르인 지배하에 놓여 있었다. 그러한 동북부는 1238년 경 앙코르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독립한 수코타이(Sukhothai) 왕국이 13세기 말부터 팽창하여 코랏 고원의 북부를 수코타이의 영토에 편입함으로써 시암인들의 영향하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즉 동북부로의 시암인들의 침투는 이 지역에 대한 크메르인들의 지배를 희생으로 일어났다.

1351년이 되면 오늘날 태국 중부 지방에 아유타야(Ayutthaya) 왕국이 창건되어 곧 동쪽으로 그 세력을 확대했는데, 이 역시 앙코르 왕국의 세력 약화를 가져왔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한 라오 왕자인 Fa Ngum은 크메르 군대의 도움으로 오늘날 라오스의 루앙프라방(Luang Prabang)에 란상(Lan Sang) 왕국을 건립했다. 한 라오 역사학자인 Maha Sila Viravong(1964 : 27)은 크메르인들이 라오인들을 지지한 것은 이를 통해 시암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한다. 이 해석에 따르면, 라오인들의 왕조사는 처음부터 반(反)시암적 정서와 함께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현재로서는 문헌학적 검증이 요구되는 하나의 가설이지만, 한편으로는 라오인들의 타이인들에 대한 정서와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날 이산인들의 시암인들에 대한 정서와 관련하여 역사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흥미로운 측면을 갖고 있다.

Fa Ngum은 란상 왕국을 건설한 후 동북부 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하여 크메르인들의 통제하에 있던 오늘날 나콘 랏차시마 일대의 지역을 제외하고는 코랏 고원의 모든 지역을 란상의 지배하에 넣었다. Maha Sila Viravong(1964 : 34)에 의하면, Fa Ngum은 코랏 정복 후 곧 라오인들을 코랏 고원의 북부 일대에 이주시켰는데, 이것은 동북부 지역으로 라오인들이 이주해 들어간 첫 증거가 된다.

코랏 고원은 14세기 중엽부터 라오인들의 지속적인 이주 지역이 되었던 것처럼 보인다. 이주민들은 대부분 생계를 위해 새로운 환경을 필요로 했던 농민이나 상인이나 수공업자들이었겠지만, 종종 란상 왕국 내에서의 정치적 혼란 혹은 압박을 피해 도피해온 정치적 망명자들도 있었을 것이다(Maha Sila Viravong, 1964 : 69-70). 코랏 고원으로 이주해 들어간 라오인들은 그곳의 크메르인들과의 접촉을 통해 크메르 문화를 수용했으며, 크메르인들은 점차 소수민족으로 전락했다. 여기서 우리는 동북부 지방이 종족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점차 ‘라오화’ 되어 갔지만, 그 ‘라오적’인 종족성과 문화에 ‘크메르적’인 요소가 섞여 들어갔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란상이나 아유타야와 같은 큰 왕국이 형성되지 않았던 동북부에는 작은 규모의 많은 성읍국가들이 있었다. 이들 가운데 메콩강 우측 연안과 같이 경제 및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은 란상 왕국의 영향하에 놓여져 있었으나, 대부분은 아유타야와 란상에 대해 독립적 혹은 반독립적 지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동북부 지역에 대한 시암인들의 영토적 관심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17세기부터였다. 아유타야 왕조의 Narai 왕(재위 1656-1688)은 므엥 세마(Muang Sema)와 므엥 코라카 부라(Muang Khorakhabura)를 합쳐 아유타야 왕국의 외곽 요새로 삼아 이를 ‘나콘 랏차시마’로 불렀고, 여기에 시암인 관리를 성주로 임명했다(Phonnarat, 1807 : 469; Keyes, 1967 : 7). 그후 나콘 랏차시마는 아유타야 왕국의 동북부 지방에 대한 행정적 통치의 중심이 되었다. 시암인들의 동북부 지방으로의 팽창은 이후 19세기 말까지 계속되었다.

14세기 중엽에 시작된 코랏 고원을 둘러싼 경쟁에서 아유타야 왕국은 17세기부터 란상 왕국에 대해 우위를 점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동북부 지역은 시암인들의 영향하에 점차 들어가게 되었고, 그것은 그 지역의 정치적 운명이 시암인들의 세계에 보다 밀접하게 연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에 비해 17세기 말 이후 란상 왕국은 쇠퇴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18세기 초에 왕국은 루앙프라방, 위엥짚(Viangchan), 찰빠삭(Champassak)의 세 왕국으로 분열했다. 코랏 지역에 대한 란상의 정치적 영향력은 부분적으로 위엥짚과 찰빠삭이 승계하여, 메콩강 우측 연안의 지역, 특히 오늘날 리이(Loei), 농카이(Nongkhai), 나콘파놈(Nakhon Phanom) 등지는 위엥짚 왕국으로, 그리고 문강과 치강을 끼고 있는 지역, 특히 오늘날 우본(Ubon)과 로이엣(Roi-et) 등지는 찰빠삭 왕국으로 넘어갔다(Keyes, 1967 : 9).

동북부 지역은 1760년대 후반에 태국과 라오스의 왕국들간에 일어난 중대한 정치적 변화로 시암인들의 영토가 되기 시작한다. 1767년 미얀마의 공격으로 아유타야 왕국은 붕괴되었다. 그러나 중국계 Taksin 장군은 미얀마 군대를 몰아내고 태국을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라오스의 세 왕국들을 모두 태국의 속국으로 만들었고 코랏 고원의 대부분을 태국 영토로 편입시켰다. 동북부 지역이 태국의 영토가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은 1827년 위엥짚의 Cao Anu왕의 태국에 대한 반란과 이에 대한 방콕 정부의 군사적 응징이었다. 위엥짚 왕국의 독립을 추구한 Anu는 찰빠삭과 연합하여 방콕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다. Rama 3세(재위 1824-1851)의 방콕 정부는 이에 대한 응징으로 위엥짚을 완전히 파괴했고 위엥짚과 찰빠삭의 모든 영토를 태국의 지방들로 편입시켰다(Vella, 1957 : 78-87). 그 결과 14세기 중엽 이후 부분적으로는 라오스의 왕국들의 일부였고 부분적으로는 독립적이었던 동북부의 모든 지역은 이제 명실공히 태국의 한 일부가 되어버렸다. 이로써 라오인들과 민족적 및 문화적으로 더욱 연결되어 있던 동북부 지역 사람들의 정체성 의식에 이제 시암인들의 타이 문화적 및 정치적 정체성이 첨가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

Rama 3세 이후 방콕 정부는 태국 영토의 일부로 삼은 동북부 지방에 대해 처음에는 간접적 통치를 실시하여 그 지역의 토착세력들에게 부분적인 자치권을 허락했다. 그러나 19세기 말부터 방콕 정부의 동북부 통치방식은 직접적인 것으로 전환되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시대적 배경이 있었다. 1880년대 말 동북부에 지방행정관들이 처음으로 임명되어 이 지역에 대한 태국 중앙정부의 행정적 통제가 강화되었다. 이 조치는 1880년대 이웃국가들인 베트남과 미얀마가 각각 프랑스와 영국에 의해 식민지화된 상황에 직면한 태국이 영토 전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행정적 관리를 강화하여 외곽 지방들을 외국 열강들의 개입과 위협으로부터 보다 효율적으로 방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Wyatt, 1984 : 200-201).

방콕 정부의 동북부 지방에 대한 행정적 통제는 1893년에 더욱 강화되었는데, 그것은 한편으로는 그 이전부터 추진해 오던 국가행정의 근대화의 일환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보다 직접적인 동기는 태국이 1893년 프랑스와의 조약 체결로 메콩강 이동(以東)의 라오스 땅을 프랑스에게 양도한 후에도 메콩강 서쪽 연안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태국 영토로 계속 팽창하려는 프랑스 식민주의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이었다(조흥국, 2002 : 57-58). 그리하여 이 해에 방콕 정부는 동북부를 포함한 모든 지방들에 대한 행정을 내무부 산하로 단일화했다. 지방행정의 중앙집권화는 그 후에도 계속 진행되어 1932년까지 거의 완성되었다.

지방행정의 중앙집권화를 통해 동북부 지방의 짜오 므엥(cao muang)들 즉 토착적인 정치적 세력 기반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전통적인 통치자들 중 상당 부분은 중앙에서 임명되어 파견된 시암인 관리들로 대체되었다. 비록 현지인들이 지방행정관의 지위를 보유한 곳

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동북부 사람들 즉 이산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및 경제적 이해관계가 중부 타이인들의 것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신들이 시암인들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방콕 정부의 동북부 지방에 대한 행정적 통제는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교통 및 통신 수단의 발달로 더욱 강화되었다. 1900년에 나콘 랏차시마와 방콕이 철도로 연결되었다. 방콕-우본 그리고 방콕-콘깐(Khon Kaen) 철도는 각각 1928년과 1933년에 개통되었다. 이로써 그 이전에는 보름 이상 걸렸던 동북부의 도시들이 방콕에서 하루 이내에 도달되는 거리에 있게 되었다. 방콕과 동북부간 우편 및 전보 등 근대적 통신도 철도 건설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었다(Keyes, 1967 : 17-19).

방콕 정부의 행정적 통제와 교통 및 통신 체계가 동북부로 확대됨으로써 이산인들은 한편으로는 시암인들로부터 압박과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점차 피부로 느끼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중부 타이 세계에 더욱 연결되었으며 방콕이 자신들이 속해 있는 국가의 경제 및 정치적 중심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중적 인식은 밑에서 분석하게 될 이산인들의 이산 지역적 정체성과 태국 국민적 정체성이란 이중적 정체성으로 나타나게 된다.

IV. 1932년 이후 태국 정부의 내부 식민주의적 이산 정책

내부 식민주의 이론을 이용한 종족·지역적 갈등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주변부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중앙부의 발전을 추구하는 정책은 종족·지역적 의식(ethno-regional consciousness)에 기반을 둔 주변부의 불만과 저항을 불러일으킨다. 중앙부 중심의 내부 식민주의 구조는 우선 주변부에 대한 중앙부의 경제적 착취에서 출발한다. 즉 중앙부는 주변부의 자원을 이용하여 자신의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중앙부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국가는 이러한 자본주의적 생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중앙부의 주변부에 대한 지배를 종족 및 문화 차원에서도 정당화하려고 노력한다. 이 노력의 가장 중요한 형태로 국가는 중앙부를 중심으로 개발된 교육시스템을 주변부에 확대시켜 주변부의 주민들로 하여금 중앙부의 문화를 학습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그 교육은 한편으로는 주변부의 중앙부로의 문화적 동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주변부 주민들로 하여금 중앙부 문화의 우월성과 주변부 문화의 열등성을 인식하도록 만드는, 이른 바 중앙부 중심의 문화제국주의의 표출로 이해될 수도 있다(Brown, 1994 : 158-162). 내부 식민주의의 이러한 구조는 태국 중부 및 중부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방콕 정부와 동북부간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Brown(1994 : 173-175)에 따르면, 동북부 지방에 대한 태국 국가의 내부 식민주의적 침투는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은 크게 두 국면으로 나뉜다.⁴⁾ 첫째는 20세기 초부터 1950년대 말까지로, 이 기간 방콕 정부는 동북부 지방을 중앙화된 행정체제로 편입하고 시암인 중심의 교육 시스템을 동북부 지방에 확대했으며 동북부 지방으로부터 세금징수와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기간 동북부는 경제, 정치, 사회 등의 영역에서 중앙에 대해 종속적이자 열등한 지역으로 취급되었다. 이산인들의 위치에서 본 이 기간의 중요

4) 브라운의 논의는 동북부 외에도 북부와 남부를 포함한 것이다.

한 특징은 1932년 의회주의 도입 이후 동북부 출신 정치인들이 이산 지역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두 번째 국면은 1950년대 말 이후로, 이 시기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1950년대 말 이후 방콕을 포함한 중부 태국의 산업발전을 위해 더욱 많은 투자가 필요했고, 이 때문에 동북부 지방의 노동력과 천연자원과 식량에 대한 중부 태국의 요구가 그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두 번째 국면의 시기에 동북부 지방의 이해관계는 방콕 정부가 추진한 자본주의 경제의 확대와 국가의 간섭으로 갈수록 침식당했다. 후자인 국가의 간섭은 지방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산업화를 육성하며 농업의 다양화 및 생산성 증대를 추구하는 농촌개발 정책으로 나타났다. 태국 정부가 농촌개발 정책에서 중시한 관심사항은 다음의 두 가지였다. 첫째, 농업의 다양화 및 생산성 향상으로,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방콕을 비롯한 중앙의 도시 지역과 태국 국민경제의 발달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둘째, 동북부 지방의 경제를 활성화시켜 이산인들로 하여금 공산주의자들을 지지하지 않도록 한다는 반공 전략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농촌개발 정책은 동북부의 빈곤 문제를 경감시키는 데 그다지 기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경제적 차이와 정치적 불만을 가중시키고 악화시켰다.

이 장에서는 동북부 지방에 대한 태국 정부의 내부 식민주의적 침투를 분석하되, 1932년 이후 방콕 정부의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과 동북부 지방의 저발전 문제가 다루어지며, 이에 대한 동북부 지방 사람들의 반응과 이들에 대한 방콕 정부의 탄압이 서술될 것이다. 동북부 지방에 대한 태국 국가의 내부 식민주의적 침투와 그를 통한 이산 정체성의 형성 및 이산 지역주의의 발달과 관련하여 브라운 역시 중시하는 동북부 지방에 대한 행정적 통제와 중앙 중심의 교육 시스템의 확대 그리고 동북부 지방 노동력의 방콕으로의 이주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동북부 지방에 대한 태국 정부의 내부 식민주의적 침투가 19세기말 Rama 5세(재위 1868-1910) 시대부터 시작되었지만, 여기서 1932년 이후부터 다루어지는 것은 그 앞의 시기의 상황이 앞장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되었다는 점 외에도,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절대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로 넘어온 1932년은 태국사의 시대구분에서 통상적으로 현대사의 기점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둘째 1932년은 이 해 입헌혁명을 통해 태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가 결성됨으로써 동북부 지방 사람들이 국회에 진출하여 이산 지역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산 정체성의 형성과 발달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랏타니욜(Rattaniyom) 즉 국가주의 정책으로 대표되는 타이족 중심의 민족주의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유명한 Phibun 정부(1938-1944)는 1939년 11월에서 1940년 3월 사이에 발표한 법령들을 통해 태국 국민들이 모두 국산품을 애용하고 타이인들의 사업을 후원하며 국가의 재건을 위해 일꾼이 될 것을 요구했다(Barmé, 1993 : 152-153). 태국 경제의 “타이화”로 설명될 수 있는 이 정책을 통해 피분 정부가 이산 지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제적 차별정책을 썼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산 출신 정치인들이 1930년대부터 보여준 정치 활동을 보면, 그들이 피분 정권의 정책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동북부 출신 국회의원들은 정치 활동에서 두 가지 뚜렷한 특징을 보여주었다. 첫째, 그들은 방콕 정부에게 이산 지역의 경제적 사정의 개선과 보다 공평한 경제정책의 실시를 요구하는 등 이산 지역의 이해관계의 보호와 증대를 위해 노력했다(Luther, 1970 : 5). 둘째, 그

들은 태국 의회사의 초기부터 대부분 자유민주주의 혹은 진보적 성향을 보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의회정치 초기에 Pridi의 개혁 및 진보적 정치를 지지했으며, 1938-1944년 사이에는 Phibun 군부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세력을 형성하기도 했다. 1947년 11월 군부쿠데타 이후 그 다음 해 1월에 치러진 총선에서 동북부 출신 의원들 가운데 군부를 찬성하는 자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 의회민주주의를 지지했다.

1948년 4월 Phibun이 군부쿠데타로 재집권한 이후, 많은 동북부 출신 의원들은 Pridi를 추종한다는 것과 공산주의 활동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살해당하는 등 적지 않은 수난을 당했다. 몇몇 이산 의원들은 심지어 동북부를 태국으로부터 분리·독립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이유로 살해되기도 했다. 1949년 3월에 벌어진 이 살해 사건은 이산 지역의 정치적 정체성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한 촉매제가 되었다고 본다. 이 사건 이후 이산인들은 시암인들이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더욱 근본적으로는 경제적 및 문화적 차원에서도 차별시하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 후 수십년 간 이산인들은 방콕 정부 및 시암인들과 더욱 많고 빈번한 접촉을 함으로써, 그러한 정치·경제·문화적 차별에 대한 인식이 더욱 자극되었다(Keyes, 1967 : 26-35).

1950년대-1960년대 초 동북부 출신 정치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반정부 활동을 전개했다. 이에 태국 정부는 동북부 출신 야당 정치인들을 종종 공산주의자로 몰아 탄압했다. 실제로 태국에서의 좌익계 정치운동은 동북부 출신 정치인들이 그 주축을 형성했다. 예컨대 1955년 Phibun 총리가 태국 내 정당 결성을 자유화함에 따라 다양한 정당들이 출현했는데, 그 중 좌익계 정당으로 가장 중요한 정당들인 셋타콘(Setthakon)당 즉 경제당과 세리 빠라차티 빠따이(Seri Prachathipatai)당 즉 자유민주당은 모두 동북부 출신 의원들에 의해 창설되었고 주도되었다. 자유민주당의 경우, 1957년 2월 총선시 45명의 입후보를 내세웠는데, 그 중 29명이 동북부 출신이었다. 좌익계 정당들에서 이산 정치인들의 지배적 상황은 선거 결과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같은 총선에서 자유민주당의 당선자 11명은 모두 이산인들이었고, 경제당의 당선자 8명도 모두 동북부 출신 입후보들이었다. 1957년 9월 Sarit Thanarat의 쿠데타 후 그 해 12월에 치러진 총선에서도 좌익계 정당들이 확보한 총 12개 의석수 가운데 11개는 이산인들이 차지한 것이었다(Keyes, 1967 : 42-45).

동북부에서 좌익계 정치인들이 이처럼 민심을 얻을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해 당시 *Bangkok Post*(February 25, 1957)는 자신들의 생활환경과 생계의 개선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던 동북부 주민들이 여당에 대해서는 강한 불신을 갖고 있었던 것에 반해, 반정부적인 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호감을 갖고 있었다고 말한다. 한편 Keyes(1967 : 47)는 좌익계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그들이 이산 유권자들의 지역주의 감정을 보다 잘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한다. 그들은 특히 이산의 경제적 문제에 대해 보다 급진적인 해결책을 제시했고, 이것이 이산 유권자들에게 보다 잘 어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산 지역의 경제적 및 사회적 상황의 개선은 사실 동북부 출신 정치인들이 이념이나 정당 소속을 불문하고 모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던 문제였다. 그리하여 1958년 4월 여당 소속의 모든 동북부 출신 국회의원들은 이산 지역의 상황 개선을 위해 다음의 네 가지 요구사항을 정부에게 “최후통첩”으로 제출하면서, 15일 이내에 정부가 이 요구사항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모두 여당을 탈퇴하여 좌익계 동북부 출신 의원들과 함께 이산 정당을 세울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Bangkok Post*, April 11, 1958).

1. 정부는 고통과 기아를 가능한 한 신속히 경감하는 등 동북부 지방에서의 상황을 개선

하기 위해 단기적인 비상대책을 수립하고 가동할 것.

2. 정부는 중부 태국과 남부 태국에서의 프로젝트들과 마찬가지로 외자를 끌어들이어 얀히(Yanhee) 수력발전소 프로젝트와 같은 중장기적 프로젝트를 세울 것.
3. 정부는 원료가 풍부한 동북부 지방에 중공업을 육성시킬 것.
4. 정부는 동북부 지방에 교육시설을 증대할 것.

이 요구사항들은 정부에 의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여당 소속 이산 의원들 중 여당을 떠난 자도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이산 의원들 사이에서 이산 정당을 결성하여 동북부 지방의 문제를 급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그 후로도 계속 있었다.

1950년대 말까지의 시기 동안 동북부 지방은 방콕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차별을 당하거나 심지어 무시되었다. 예컨대 1949년경 태국산 쌀의 해외수출에서 동북부 지방의 쌀은 불이익을 당했다(Keyes, 1967 : 39-40). 태국 정부는 1950년대 말부터 은행업과 대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자본주의적 산업발전 정책을 추진했으며, 그 과정에서 방콕과 방콕 인근의 중부 지방이 산업의 중심으로서 더욱 발달되었다. 문제는 태국 정부가 중부 지방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 주변부의 자원과 인력을 이용하는 등 주변부를 희생시켰다는 점이다. 이로써 중부 지방과 동북부 지방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Brown, 1994 : 166). 또 위에서 언급한 ‘농촌개발 정책’이 역시 1950년대 말부터 동북부 지방에 확대된 이후, 동북부 지방의 경제적 상황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절대적인 수치의 측면일 뿐, 동북부 지방과 방콕 및 중부 지방과의 상대적 격차는 더욱 커졌고, 이것은 이산인들에게 더욱 심한 상대적 빈곤과 상대적 박탈감을 갖다 주었다. 그 상대적 격차의 증대는 다음의 비교 수치들에서 드러난다.

<표 1> 태국의 국민총생산(GNP) 중 동북부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단위 : %)

비교연도	1960	1966	1976	1986
비율	19.10	17.80	14.70	13.89

Keyes(1987 : 159)

위의 표에서 태국의 국민총생산에서 동북부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1960-1983년간 지방별 국민일인당 국민소득 비교(단위 : 바트)

	1960	1970	1980	1983
전 국	2,106	3,849	14,743	18,770
방콕 광역시	5,630	11,234	41,300	51,441
중 부	2,564	4,662	15,646	24,002
남 부	2,700	3,858	13,745	16,148
북 부	1,496	2,699	9,866	12,441
동 북 부	1,082	1,822	6,012	7,146

Keyes(1987 : 159)

<표 2>에서 드러나는 것은 동북부 지방의 국민일인당 소득이 어느 비교 시점에서도 타 지방과 비교해 볼 때 최저일 뿐만 아니라, 증가의 폭도 가장 낮다는 점이다. 예컨대 동북부와 그 다음 가난한 지방인 북부를 비교해 보면, 1960년에서 1983년 사이 북부는 732% 성장했는데 비해, 동북부는 560%였다. 특히 방콕 광역시는 같은 기간 814% 성장을 기록했으며, 국가 전체 평균 성장도 791%였다. 태국 통계청이 발표한 1990년 지역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을 비교하면, 방콕은 11,742바트인 데 비해, 동북부는 3,529바트였다. 이 수치는 중부 지방의 5,827바트, 남부 지방의 5,153바트, 북부 지방의 4,719바트에 비해서도 크게 낮다(Far Eastern Economic Review, April 14, 1994 : 23).

태국 정부는 1950년대 말부터 동북부 지방에 대한 투자 유치와 인프라 건설 등을 통해 지역간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했다. 그러나 1967-1971년 사이 정부의 지역개발 예산 중 동북부 지방에 할당된 것은, 태국의 총인구에서 동북부 지방이 차지하는 약 1/3의 비중에도 불구하고, 20.7%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그 중 약 1/4은 안보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위한 것이었다. 1972년에 동북부 지방에 할당된 정부 예산의 몫은 28%였지만, 이것은 1976년에는 18%로 떨어졌다. 정부 지출을 보면, 1970년대 말 방콕에 대한 액수가 동북부 지방 전체에 대한 것보다 무려 6배 가까이 많았다.

1960년대 초부터 1970년대 말까지 정부는 동북부 지방의 산업발전을 위해 꾸준히 지출을 늘렸다. 그러나 공장 숫자만 늘었지 지역 경제의 실질적 개선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예컨대 1970년 경 동북부 지방에는 태국 전체의 제조업체 가운데 약 1/3이 있었지만, 제조업 총생산 가치는 전국의 5.6%에 불과했다. 이 수치는 1978년이 되면 더욱 떨어져 3.6%밖에 되지 않았다. 그에 비해 방콕에는 1970년 경 전국 제조업체의 약 1/4이 있었지만, 생산 가치는 51.2%였고, 이것은 1978년에는 54.3%로 증가했다(Brown, 1994 : 176-177). 1988년에 이르러서도 동북부 지방의 공업 부문 생산이 국가 전체 공업 부문 생산의 4.9%에 불과해, 이 지역의 산업이 여전히 매우 낙후되어 있었다(Suranart, 1993 : 8). 태국 정부의 지역개발 정책에도 불구하고, 방콕 및 중부 지방과 동북부 지방간 격차가 더욱 커진 것은 태국 정부가 지역개발보다 수입대체산업 발전과 대기업 육성을 더욱 중시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후자의 정책의 초점은 사실상 방콕에 놓여져 있었다.

1950년대 말 이후 동북부 출신 의원들은 이산 지역의 상황 개선을 위해 종종 ‘사회주의적’ 해결방안까지도 제시했다. 태국 정부는 그 위협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기 시작했으며, 그 우려는 1958년 10월 Sarit이 쿠데타로 새로운 군부통치 시대를 열자마자 곧 행동으로 나타났

다. Sarit 정부가 이산 문제를 국가와 정부에 대해 위협적인 중대한 이슈로 간주한 것은 대략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모두 공산주의의 위협과 관련된 것이었다.

1. 이산 정치인들 가운데 태국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공산주의적 음모에 가담하고 있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점.
2. 경제적으로 낙후된 이산 지역이 공산주의적 혁명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점.
3. 이산 지역주의가 북베트남, 중국, 라오스 등지의 공산주의자들의 도움으로 분리주의 운동으로 발전할 위험을 갖고 있다는 점.

쿠데타 직후 계엄령을 선포한 Sarit 정권은 많은 동북부 출신 의원들 특히 좌익계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1961년 12월 대규모 체포가 행해진 직후, 태국 정부는 체포된 자들이 동북부 지방을 태국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공산주의 분리주의자들의 음모에 마을 주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한 반정부적인 불순분자로서, 라오스의 공산주의자 집단인 빠텟 라오(Pathet Lao)로부터 훈련과 행동지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주장했다(Keyes, 1967 : 49-54).

1963년 12월 Sarit을 이은 Thanom 정부(1963-1973) 역시 이산 정치인들을 철저히 통제하고 탄압하는 정책을 지속하여, 1960년대 중엽이 되면 이산 지역의 불만을 대변할 어떠한 합법적인 기관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1960년대 중엽에서 1980년대 초 사이에 동북부 지방에서 공산주의자들의 반란이 일어났다. 동북부 지방은 1920년대 말 베트남 공산주의자들이 도피처이자 활동 기지로 사용한 이래, 여러 공산주의자 집단들의 활동 근거지가 되어 왔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태국공산당(CPT)도 동북부 지방에서 협력자와 지지세력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태국공산당이 1961년에 동북부 지방을 전략 근거지로 택한 이래, 그들의 세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78년이 되면 무장게릴라만 14,000명이나 되었다(Thomas, 1986 : 17-18).

Brown(1994 : 191-195)은 동북부 지방에서의 공산주의자들의 반란을 이데올로기적인 계급의식의 발로로 보아야 하는지 혹은 종족·지역적 의식의 표출의 한 형태로 해석할 수 있는지의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이 지방에서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이 꽤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이산인들이 인력과 식량과 자금과 은신처를 제공하는 등 그 활동을 후원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브라운은 그러나 이산 주민들의 대부분이 분명히 공산주의자들이 아니었으며, 그들이 공산당을 후원한 것은 단지 자신들의 빈곤한 상황에 대해 방콕 정부에 대해 적개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한다. 그는 태국공산당이 동북부 지방에서 지지세력을 획득하기 위한 선전활동을 전개할 때, 특히 경제적으로 매우 빈곤한 지역에서 가난한 농민들의 계급적 이해관계에 호소했다는 점, 그리고 이 때 공산주의자들이 이산인들의 종족·지역적 정체성에 관심을 갖고 이에 호소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동북부 지방에서의 공산주의자 반란은 계급투쟁적 차원에 머물러 있었을 뿐이라고 결론을 내린다.⁵⁾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이 이산인들에게 계급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동북부 지방의 빈곤 상황을 환기시켜 주고 방콕 정부의 자본주의적 및 지방 편파적인 경제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이

5) Brown(1994 : 195-199)은 태국공산당이 이산의 종족·지역적 정체성보다는 계급적 의식을 더욱 중시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다음의 두 가지를 든다. 첫째, 태국공산당은 동북부 지역을 태국 영토에서 분리시켜 '인도차이나 연방'(Indochinese Federation)이라는 명칭의 새로운 라오 세계를 만들려는 빠텟 라오 및 베트남 공산주의자들의 아이디어에 동조하지 않았다. 둘째, 1973년 학생들의 민주혁명 이후 태국공산당의 지도부가 화인(華人)과 시암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태국공산당이 이산 지역의 종족·지역적 이해관계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다.

를 비판한 것은 이산 정체성과 이산 지역주의를 어느 정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1970년대 중엽 이후 태국 정부의 효율적인 진압과 동북부 지방에 대한 강화된 지역개발 정책 그리고 태국공산당 내 조직의 문제 등의 이유로 동북부 지방에서 점차 세력을 잃게 되었다. 태국 정부는 1980년대에 들어서서 동북부 지방에 대한 기존의 농촌개발 정책을 수정하여, 이 지역에서의 사적 부문을 육성하고 비정부기구(NGO)들의 정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정책 변경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공산주의자 반란이 무엇보다도 지방에서의 경제적 빈곤을 그 온상으로 삼아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정부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는 이산 농민들의 민심을 사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었다(Somchai, 2002 : 23). 그리하여 예컨대 Chatchai Choonhavan 정부(1988-1991)는 1980년대 말부터 동북부 지방의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 인프라 건설사업은 Chuan Leekpai 정부 때(1992-1995)에도 계속되었다. 특히 Chuan 정부는 동북부를 포함한 지방들에 공장을 세우는 기업들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그 효과는 미미할 뿐이었고, 이산 주민들의 불만은 여전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태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산 지역의 경제 발전이 더딘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원인들을 살펴보면, 첫째 태국의 국내 기업이나 외국 기업들이 인프라 구축이 아직 부족한 동북부 지방으로의 투자 진출을 꺼린 반면, 항구와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는 중부나 동부 지방을 선호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동북부 지방의 노동 인구 중 젊은 층의 상당 부분이 방콕 등 태국의 대도시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생기는 동북부 지방에서의 인력 수급 문제가 있다. 셋째로는 1993년경 동북부 지방에 승인된 투자사업의 건당 규모가 방콕에서 승인된 것에 비해 훨씬 작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태국 정부가 여전히 방콕 및 중부 지방 중심의 산업 발전을 중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Far Eastern Economic Review, April 14, 1994 : 23).

그러나 어쨌든 위에서 언급한 1980년대 정책 수정 이후, 이산 지역에서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첫째, 이산 지역이 여전히 방콕 및 중부 지방에 비해서는 경제적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었지만, 많은 농민들에게 자신감을 고양시키고 적어도 부분적으로 이산인들의 태국 국가에 대한 적개심을 감소시켰다. 둘째, 특히 1986년 이후 태국 경제가 호황을 누리면서 국내총생산이 대폭 증가했지만, 이로써 지역간 경제적 발전의 격차는 더욱 심해졌고, 이것은 동북부 주민들의 정치적 불만을 증대시켰다. 1980년대 후반 태국은 빠른 경제성장을 경험했다. 예컨대 1987-1991년간 태국의 국내총생산은 년 평균 10.5%의 성장을 기록했다. 경제적 호황은 무엇보다도 수출산업의 팽창과 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증대에 힘입어 가능했다. 그러나 특히 수출경제의 팽창은 지방의 값싼 노동력과 값싼 농업생산을 희생으로 이룩된 것이었으며, 이로써 태국의 도시와 농촌간 격차는 더욱 커졌다. 그리고 이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업 인구가 많은 동북부 지방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Somchai, 2002 : 30).

이러한 두 가지 변화로 인하여, 동북부 지방에서의 방콕 정부에 대한 저항은 이전과는 다른 형태와 구조를 띠게 되었다. 우선 그 저항은 이제는 소규모로 일어나고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그리고 특정 지역,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더욱 열악한 곳에서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동북부 지방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지난 20-30년간 태국의 경제 및 사회적 발전으로 말미암아 지역에 따라 다양해진 결과로 보인다. 저항 양상의 변화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저항 활동의 중심이 과거 이산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로부터 이산의 비정부기구들로 바뀌었다

는 점이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이산 출신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성향의 변화에 기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1980년대 이후 동북부 지방에서의 비정부기구들의 사회 및 정치 참여의 활성화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산 정치인들이 저항의 중심세력이 더 이상 되지 못한 것을 개략하면 다음과 같다. 1980년대 초부터 재개된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이산 지역의 불만을 중앙에서 대변할 제도적 가능성이 다시 열렸다. 그러나 20년 이상 이산 국회의원들의 활동 전통이 중단됨으로써, 이산 지역의 지도자나 이산 지역주의 운동을 이끌 조직이 붕괴되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동북부 지방은 방콕 및 중부 지방의 군부를 등에 업은 부유한 정치인들의 금권정치의 무대가 되어버렸다. 이로써 동북부 지방은 정당정치 차원에서 볼 때 1980년대 태국의 집권세력인 군부를 가장 지지하는 지역이 되었다. 이 점은 1992년 9월 총선에서 태국의 다른 지방들의 대다수 유권자들이 반(反)군부의 ‘천사’(Angel) 정당들을 지지했던 것에 비해, 동북부는 친군부의 ‘악마’(Devil) 정당들을 지지하는 모습에서 나타났다(Brown, 1994 : 199-200).

끝으로 비정부기구들의 활동에 대해 살펴본다. 1980년대부터 이산 지역에서 비정부기구들의 역할이 증대되었는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바처럼 태국 정부의 비정부기구들에 대한 장려 정책의 소산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의 경제 및 사회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 회의를 품은 이산인들이 이제는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산 지역 비정부기구들은 1985년에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1990년에는 다음의 네 가지 목표를 추구하는 활동전략을 수립했다(Niran, 1993 : 3).

1. 대안을 개발하여 농민들로 하여금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한다.
2. 주민들의 조직과 직업 네트워크 그룹을 만들고 그 활동을 강화한다.
3. 천연자원을 보존하고 농지와 지역 자원에 대한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한다.
4. 주민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삼아 통일된 계획을 제시하여 다양한 사회행동 그룹들과 압력단체들간의 협력을 이끌어낸다.

이 전략은 근본적으로 농촌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그것은 1987년 당시 이산 지역에서 활동하던 총 49개의 비정부기구들이 모두 농촌개발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있었던 상황에도 반영되어 있다(Somchai, 2002 : 25). 이산 지역 비정부기구들의 이같은 활동 방향은 위에서 언급한 1980년대 말부터 고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농촌간 격차의 심화에서 비롯된 이산 지역 농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맞물려 있었다.

V. 이산 정체성의 형성과 발전

동북부 지방 특히 코랏 고원의 내륙 지방은 18세기 말-19세기 초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라오 세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태국으로부터도 독립되어 있었다. 이에 대한 역사적 기억을 갖고 있는 동북부 주민들에게 지난 200년간 나름대로의 정체성이 형성되어 왔다. 이 정체성이 이산 지역주의의 본질을 이룬다. 이 정체성은 동북부 주민들의 관점에서 볼 때 자신

들의 운명을 맡기기에는 정치경제적 힘이 너무도 약한 라오스의 국가적 정체성에 연계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다. 이 점은 이산인들이 “라오인들은 우리와 같다”고 말하지, “우리들은 라오인들과 같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에서도 암시되어 있다(Luther, 1970 : 6). 그 정체성은 그들이 살고 있는 태국이라는 한 국민국가의 영토적 테두리와 정치경제 및 사회문화적 틀 내에서 형성되어 왔다.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태국 정부의 동북부 지방에 대한 내부 식민주의는 포괄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그러한 내부 식민주의적 정책은 동북부 지방 주민들의 정치적 의식에 영향을 미쳐 이산 정체성이 형성되었고 이산 지역주의가 발전했다. 이산 정체성 및 이산 지역주의 형성에 대한 내부 식민주의의 영향은 다음의 다섯 경로를 통해 일어났다(Brown, 1994 : 175).

1. 방콕을 비롯한 중부 태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으로 인한 지역간 불평등한 발전, 그리고 이를 통한 동북부 주민들의 상대적 빈곤에 대한 인식
2. 절대적 빈곤과 지역 내 경제적 격차의 확산, 그리고 이에 대한 이산인들의 계급 차원의 불만
3. 동북부 지방에 대한 태국 정부의 증가하는 행정적 통제, 그리고 이에 대한 이산인들의 증가하는 불만
4. 중부 태국 중심의 교육 체계가 동북부 지방으로 확대된 것, 그리고 이를 통한 중앙 중심의 문화에 대한 이산인들의 거부 및 불만 의식
5. 이산인들의 중부 지방 특히 방콕으로의 이주, 그리고 이를 통한 종족·지역적 차별에 대한 이산인들의 인식

이 중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앞장에서 논의되었다. 이 장에서는 나머지 세 가지의 영향과 이들을 통해 형성된 동북부 지방에서의 이산 정체성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방콕 정부의 행정적 통제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19세기 말부터 강화된 동북부 지방에 대한 행정적 통제는 1932년 이후로도 계속 강화되었던 것처럼 보인다. 특히 제4장에서 보았던 동북부 지방에서의 공산주의 위협과 분리주의의 위험과 관련하여 방콕 정부는 순전히 행정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군 및 경찰력을 동원하여 이산 지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이산 농민들에게 방콕 정부의 행정적 통제가 어떻게 비쳤는지는 한 때 태국 내 반란 진압의 임무를 맡았던 보안사령부의 사령관이었던 Han Pongsitanond의 1975년 인터뷰에서 나타난다. 여기서 그는 “마을 주민들의 가장 심각한 불평사항 중에는 공무원들이 마을 주민들과 접촉 시 보여주는 행동거지도 포함되어 있다. 마을 주민들과 공무원들간의 이러한 갈등과 그 결과 일어나는 불평은 (공산주의자) 반란군들이 마을 주민들을 반란으로 이끌어 들여 자신들을 지지하게끔 만드는 바탕이 되었다”라고 말한다(Morell and Chai-Anand, 1981 : 87). 이산 농민들 사이에서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한 속담에 따르면, “농민들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홍수와 가뭄과 방콕에서 온 부패한 공무원이다”(Rosenberg, 1986 : 140).

동북부 지방에 대한 방콕 정부의 행정적 통제의 확대는 동북부 주민들에게 한편으로는 시애틀인들에 대한 반감을 심겨 주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방콕이 중심이 된 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주었다. 이산인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이러한 이중적 의식이 형성되는 데 보다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19세기 말부터 방콕 정부가 실시한 중앙집권화된 교육이었다. Rama 5세가 1885년 근대적 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정책을 수립한 이후, 초등학교 교육의 의무교육화는 1921년에 실시되었다(Paitoon, 1988 : 155). 그후 1934년까지 방콕 정부의 교육부에 의해 교과목과 교과 내용이 통일되었고, 이것은 전국의 학교에 적용되었다. 그에 따라 동북부의 학생들은 태국의 지리와 역사와 타이어를 배워야 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왕과 종교 즉 불교를 존중 및 존경하도록 요구되었다.

태국의 교육과 문화를 중부 지방 중심으로 수립하려는 것은 Phibun의 랏타니움 정책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타이인들을 진정한 타이인으로 만든다”는 목적을 갖고 발표된 랏타니움 정책은 구체적으로는 타이인들이 나라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도록 한다는 것과 타이 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태국의 지배적인 문화가 되게 한다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었다. 이에 따라 Phibun 정부는 태국 내의 여러 지역들뿐만 아니라 라오스, 미얀마, 중국 운남성, 베트남 북부 등에 사는 ‘파이’(Tai)족 계통의 모든 민족들을 타이(Thai)족으로 간주한 소위 ‘pan-Thai’ 즉 범(凡)타이 정책을 실시했다.⁶⁾ 그러나 범타이 세계를 창출한다는 목적을 수립해 놓고서도 그 세계의 이른 바 ‘타이 문화’는 중부 타이인들의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Barmé, 1993 : 144-149; Stowe, 1991 : 102). 그리하여 1939년 8월 초 방콕 정부는 한 법령을 공포하여 태국 내 모든 태국 국민은 자신의 종족적 배경을 가리키는 모든 명칭을 벗어버리고 ‘차오 타이’(chao thai) 즉 타이인으로만 불릴 것을 요구했다. 이 법령은 특히 태국 국경 이내와 이웃 국가들에 살고 있는 라오인들과 산족에게 타이적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 그것은 태국 당국이 심지어 태국의 동북부와 북부에서 당시 유행하던 대중적인 가요들에서 ‘라오’나 ‘응이아우(Ngiaw : 산족을 가리키는 타이어 명칭) 등의 단어를 삭제하고 그 부분에 ‘타이’를 끼워 넣도록 했다는 점에서 더욱 명백해진다. 또한 피분 정부는 동북부의 라오인들을 포함한 태국 내 소수민족들이 중부 타이어를 배우도록 요구했다(Barmé, 1993 : 151-156).

중앙 중심의 교육은 비단 학교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정부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마을의 이장(kamnan 감난)이나 촌장(phu yai ban 푸야이반)을 통해 일반 주민들에게 행해지는 홍보 및 선전 교육 등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태국의 지방들에서 이장이나 촌장은 태국의 사회비판적 소설작품들에서 흔히 묘사되고 있듯이 지역 관료사회의 편에 서서 가난한 농민들을 박해하고 착취하는 존재로 나타나기 일쑤였다(Rosenberg, 1986 : 141-141). 중앙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교육은 이산인들로 하여금 국왕을 구심점으로 한 태국 국가에 대한 일체감 즉 태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의식을 갖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Keyes(1967 : 19-20)가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듯이 중앙집권적 행정과 교통 및 통신의 확대와 마찬가지로 중앙을 중심으로 짜여진 교육은 이산인들로 하여금 중부 타이인들의 문화와 사회에 더욱 밀착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문화와 생활방식이 시암인들의 것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느끼게도 했을 것이다. 즉 이산인들은 중부 타이 세계에 대해 한편으로는 더욱 가깝게 다가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거리감을 두는 이율배반적인 이중적 자세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

후자의 측면과 관련하여 중앙 중심의 교육이 이산인들에게 어떻게 비쳤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로 1933년 경 일어난 소위 ‘몰람 노이’(Molam Noi) 사건을 들 수 있다. ‘노이’란 이름의 향토 창극가수 즉 몰람(molam)은 1932년 혁명 이후 어수선한 사회적 분위기를 이용하여 마하

6) ‘파이’ 개념은 언어적 및 문화적으로 공통된 특징을 공유하는 모든 파이계 민족들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 파이 민족이 역사 시대에 오늘날 태국의 타이족, 라오스의 라오족, 미얀마 산주의 산족 등 다양한 민족들로 분화되었다(Wyatt, 1984 : 1).

사라캄(Mahasarakham) 주에서 반정부 운동을 일으켰다. 그는 지역 주민들에게 정부에 세금을 내지 말고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지 말도록 촉구했다. 그는 또한 옛날의 위영판 왕국을 부활시켜 자신이 왕이 되고 코랏 고원에도 또 다른 왕국을 세워 라오 세계의 영광을 재현한다는 꿈을 세우기도 했다. 그의 시도는 1933년 그가 체포됨으로써 수포로 돌아갔지만, 이산인들의 방콕 정부에 대한 적대감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Keyes, 1967 : 69). 필자가 2002년 12월 마하사라캄에서 만난 Koson이라는 이름의 한 60대 초반의 지식인은 몰람 노이 사건에 대한 역사적 기억을 갖고 있었으며, 이 사건을 이산 정체성과 관련하여 중시하고 있었다.⁷⁾ 필자가 같은 시기에 면담한 마하사라캄 대학교의 인문사회과학 대학의 학장인 Caruwan Thammawat 교수에 따르면, 이산 지역에는 불교승려들 가운데 이산인 자녀들을 현대 학교에 보내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전통적인 불교사원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⁸⁾ 과거 동북부 지방의 불교사원들에서는 어린이들은 타이어 외에도 라오어를 읽고 쓰는 것을 배웠다(Paitoon, 1988 : 159).

끝으로 방콕과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한 태국의 경제발전이 동북부 주민들로 하여금 중부 지방 특히 방콕으로 이주하게끔 했으며, 이주한 곳에서 그들이 종족·지역적 차별을 경험하고 이것이 이산 정체성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다. 제4장에서 언급한 동북부 지방의 상대적 저발전은 이산인들로 하여금 일자리를 찾아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끔 만들었다. 태국 정부의 통계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89년경 동북부 지방 노동 인구의 82.5%가 농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농업생산은 지역총생산(GRP)의 33.3%에 불과했다. 동북부 지방 노동 인구의 17.5%가 지역총생산의 66.7%를 생산한 셈이다(Suranart, 1993 : 7). 이러한 산업 구조를 가진 동북부 지방 주민들의 대부분이 고향을 떠나 타 지방으로 노동 이주를 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Sanitsuda(1991 : 21)에 의하면, 1980년대 말 이산 농민들의 약 85%가 소득이 생계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약 200만 명이 고향을 떠나 공업이나 서비스업이 발달한 태국 내 다른 지방이나 심지어 싱가포르 혹은 중동으로 간다. 이산인들이 가장 많이 이주하는 곳은 방콕으로, 그들은 방콕 일대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주요 인력을 공급한다. 태국 내에서 노동 이주를 하는 경우, 이산인들은 대개 1년 이내에 고향으로 되돌아간다.⁹⁾

1990년대 중엽에도 동북부는 태국에서 타지방으로의 이주자가 가장 많은 지방이었다. 그 이주자의 약 62%가 방콕으로 갔다. 방콕 및 중부 태국으로 이주한 이산인들은 자신들의 고향과 이주 지역간 발달에 있어서의 격차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것 역시 이산 정체성과 나아가서는 이산 지역주의를 고취시키는 데 기여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산인들의 방콕 및 중부 태국으로의 이주가 촉발된 것의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1940년대 후반까지 방콕의 인력 공급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해 온 중국인들의 태국 이민이 태국 정부가 1949년에 중국인들의 이민을 매년 200명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내림으로써 사실상 중단되었다는 점이다.¹⁰⁾ 둘째는 방콕을 중심으로 한 중부 태국의 경제적 성장과 동북부 지역 경제의 상대

7) 2002년 12월 23일 마하사라캄에서 필자와의 대화.

8) 2002년 12월 24일 마하사라캄 대학교 인문사회과학 대학 학장실에서 필자와의 면담.

9) 얼마나 많은 수의 이산인들이 단기적이건 장기적이건 방콕으로 이주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수치가 없다. Keyes(1967 : 38)는 1960년대 전반 마하사라캄의 한 마을에서 20세 이상의 남자들 중 49%가, 30-39세의 남자들 중 67%가 방콕에서 일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방콕 외 중부 태국의 다른 도시로 간 경우는 통계에 잡혀 있지 않다. 한 마을의 수치를 이산 지역 전체에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상당한 숫자의 이산 청장년들이 방콕을 포함한 중부 태국으로 갔다는 것이다.

10) 방콕 정부가 1940년대 후반에 중국인들에 대해 실시한 이민할당제에 대해 조흥국(1999 : 218) 참고.

적인 낙후를 들 수 있다. 보다 근본적인 이 문제는 앞장에서 살펴본 지난 수십년간 태국 정부의 방콕 중심의 산업화 정책의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1970년대 말 이후 수출지향적 산업화가 중부 지방의 도시들에 집중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됨으로써, 태국의 도시와 농촌간 그리고 농업 및 서비스업과 농업간 격차 혹은 불균형이 매우 커졌다. 1990년대 초, 당시 태국 인구의 60%가 여전히 주로 벼농사를 하는 농민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농업이 태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2%에 불과한 점은 그러한 산업화가 타이 사회를 그동안 얼마나 비틀어진 구조로 발전시켜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Far Eastern Economic Review, April 14, 1994 : 22). 농업 비율이 높은 동북부 지방의 경우, 위의 문제는 타 지방에 비해 더욱 심각하게 다가왔을 것이다.

방콕으로 온 이산인들은 대부분 수확기와 파종기 사이에 돈벌이를 위해 온 계절노동자들이었으며, 그보다 조금 더 오래 머문 경우라도 대개 몇 년만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들이었다. 방콕에 온 이산인들은 대부분 비숙련 노동자로서 힘들고 임금이 낮은 일을 했다. 그들은 또한 라오스어에 매우 가까운 ‘사투리’를 쓴다는 이유로 시암인들로부터 종종 경멸 당했으며 “촌놈”이라고 욕을 얻어먹기도 했다(Luther, 1970 : 6). 방콕에서 이러한 경험을 한 이산인들이 시암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구분의식을 느끼고 그들에 대해 반감을 가지며 자신들끼리는 상호 결속을 한 것은 필연적이었다. Skinner(1957 : 309)에 따르면, 1950년대에 방콕에서 계급의식을 지니고 동시에 상호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진 하층민 집단이 생겨났는데, 이들 중 상당 부분은 이산 출신의 이주민들이었다.

이산인들은 이처럼 방콕에서 한편으로는 계급의식과 종족 차별의 경험과 그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갖게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산인들의 공통된 문화 및 문제 의식을 갖게 되었는데, 후자는 특히 전자의 경험과 감정을 통해 종종 더욱 구체화되었고 강화되었다고 보여진다. 이산인들은 방콕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전자와 후자의 경험 및 감정과 이산 의식을 함께 가지고 갔다. 그들은 고향에서 이산인들인 ‘우리’를 시암인들인 ‘그들’과 구분하는 이산 정체성의식이 형성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Keyes, 1967 : 39).

이상 살펴본 것처럼, 여러 경로를 통해 형성된 이산 정체성은 이산 지역적 정체성과 태국 국민적 정체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다. 이산 지역적 정체성은 이산 지역이 갖는 사회문화적 전통과 체계에 대한 이산인들의 정체성 의식으로, 이것은 라오스의 라오인들의 것에 가깝지만 시암인들의 것과는 확연히 구별된다. 이 정체성은 이산 내부에 집중되며, 이산 지역을 떠나려 하지 않고 이산 지역에서 정치경제적 및 사회문화적 삶을 영위하려는 이산인들의 의식에서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것은 위에서 본 것처럼, 방콕 등 태국의 다른 지방에 가서 삶을 영위하는 이산인들에게서도 종종 확인될 수 있다.

태국 국민적 정체성은 이산인들의 여러 부류들에서 약간씩 그 성격이 다를 수 있지만, 이 정체성의 한 중요한 특징은 타이적 엘리트 문화에 포함되기를 원하는 의식으로, 이를 위해 태국 국가의 사회문화적 구심점인 태국 국왕과 불교를 자신의 정체성의 구심점으로 삼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정체성 의식을 갖는 이산인들은 태국의 관료 사회에 진출하고 상가 즉 불교교단의 일원이 되기를 원한다. 이러한 자세는 무엇보다도 동북부 지방이 태국에 편입되고 중부 태국 중심의 교육체계가 이산인들에게 확대됨으로써 서서히 형성·발전된 것으로 보인다. 타이어로 ‘카 랏차칸’(kha ratchakan) 즉 ‘왕의 하인’인 관료들이 타이 사회 내에서 그 위상의 정당성을 국왕에 대한 충성과 국왕으로부터의 인정에서 찾는 것은 전통 왕국 시대뿐만 아니라, 현대의 태국 정부에서도 나타난다.

위의 두 가지 정체성 의식은 이산인들의 의식 속에 이중적으로 공존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그것은 마치 한 개인이 자신의 자아적 정체성을 고수하면서 자신이 속한 집단과의 동질감을 동시에 모색하고 집단의 정체성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려는 것과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정체성의 두 측면의 상호 비중은 동북부 지방의 지역에 따라, 혹은 사회적 계급에 따라, 혹은 직업에 따라, 혹은 개별적인 집안 및 개개인이 방콕 정부 및 시암인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졌던 역사적 경험에 따라, 혹은 개별적인 집안 및 개개인이 방콕 정부 및 시암인 사회와 현재 갖고 있는 관계에 따라, 혹은 메콩강 건너 라오스에 살고 있는 라오 친지들과의 관계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다. 예컨대 라오스 쪽에 가까운 지역에 사는 사람일수록, 혹은 정부의 행정적 및 문화적 압박과 불평등한 경제정책 등에 대해 비판적인 지식인일수록 이산 지역적 정체성이 보다 강한 대신 태국 국민적 정체성은 보다 약할 수 있을 것이다.

VI. 결 론

마하사라캄 대학교의 Caruwan Thammawat 교수는 이산 문제가 태국 정부가 추구하는 타이 사회의 조화를 깨트리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인 논의에서 기피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부 지방에서 지식인들이 이산 문제를 중시하고 이것을 이슈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러주었다. 대화에서 그는 이산 정체성 문제의 핵심에는 동북부 사람들이 겪는 경제 문제와 교육 문제가 놓여져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의식 있는 지식인들 중에는 방콕 정부가 도입한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지 않는 운동을 전개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그러한 학교에서의 교육을 통해 무엇보다도 이산 지역의 언어와 역사와 문화 등과 연결된 이산 정체성이 점차 말살되어 가고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¹¹⁾ 필자는 2002년 12월 마하사라캄에서의 Caruwan Thammawat 교수와의 대화를 통해 이산 정체성 문제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비록 태국 정부의 국가통합을 위한 노력의 결과 오늘날 상당히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것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산 정체성은 이 글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동북부 지방과 방콕 및 중부 지방과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인 오래된 상호관계를 통해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다. 특히 중앙 중심의 교육, 이산인들의 방콕 이주와 시암인 사회 및 문화와의 직접적인 접촉, 그리고 방콕과 중부 태국을 중심으로 추진된 경제정책 등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가운데 이산인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갖도록 한 마지막 요인의 경우, 그 경제적 박탈감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계급의식과 이산 정체성 의식간에 섬세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그 박탈감이 계급의식의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산 정체성의 차원으로 발전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 글은 대략 1980년대까지 동북부 지방에 대한 태국 정부의 내부 식민주의와 그로 인한 이산 정체성의 형성과 성격에 관해 살펴본 것이다. 오늘날 태국에서 동북부 지방 사람들이 이산 정체성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중시하고 있는지는 이 글에서 잘 그려지지 못했다. 이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우선 동북부의 지방신문들을 조사하고 관련기사들을 분석하는 작업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 이산 출신 작가들이 쓴 문학작품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

11) 2002년 12월 24일 마하사라캄 대학교 인문사회과학 대학 학장실에서 필자와의 면담.

도 흥미로운,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기’ 운동과 관련하여, 그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태국의 현행 국정교과서들을 분석하여 그 내용이 얼마나 중앙 중심이며 지방 문화를 무시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러한 운동을 주도하는 지식인들의 활동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르낭, 에르네스트(2002). **민족이란 무엇인가**. 신행선 역. 서울 : 책세상.
- 조흥국(1999). 현대 태국 화인사회의 발전과 변화. **동남아시아연구** 7.
- 조흥국(2002). 메콩강의 경제적 잠재력과 유역국가들의 상호관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 조흥국 외. **메콩강과 지역협력**. 부산 :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 태국의 주별 인구 및 종교 분포(2001). **동남아선교뉴스레터** 24(2002년 4월). 동남아선교정보센터.
- Bangkok Post*.
- Barmé, Scot(1993). *Luang Wichit Wathakan and the Creation of a Thai Identity*. Singapore :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Brown, David(1994). *The State and Ethnic Politics in Southeast Asia*. London : Routledge.
- Donner, Wolf(1978). *The Five Faces of Thailand : An Economic Geography*. Hamburg : The Institute of Asian Affairs.
- Far Eastern Economic Review*.
- Fukui, Hayao(1993). *Food and Population in a Northeast Thai Village*. Translated by Peter Hawkes. Honolulu : University of Hawaii Press.
- Keyes, Charles F.(1967). *Isan : Regionalism in Northeastern Thailand*. Ithaca : Southeast Asia Program, Department of Asian Studies, Cornell University.
- Keyes, Charles F.(1987). *Thailand : Buddhist Kingdom as Modern Nation-State*. Boulder : Westview.
- Luther, Hans U.(1970). *Reformen gegen Rebellen -Zur Situation der Bauern in Thailand*. Hamburg : Institut für Asienkunde.
- Maha Sila Viravong(1964). *History of Laos*. New York : Paragon Book Reprint Corp.
- Monier-Williams, Sir Monier(1979). *A Sanskrit-English Dictionary*. Oxford : At the Clarendon Press.
- Morell, David & Chai-Anand Samudavanija(1981). *Political Conflict in Thailand : Reform, Reaction, Revolution*. Cambridge, MA : Oelgeschlager Gunn & Main Publishers.
- Niran Kultanan(1993). NGOs Movements and Democratic Transition : A View From the Northeast. *Proceedings of the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ai Studies*. London.
- Paitoon Mikusol(1988). Education and Sociocultural Assimilation in Northeastern Thailand. Mahasarakham : Khana Sangkhomsat, Mahasarakham University.

- Phonnarat, Somdet Phra(1807). *Phraratcha phongsawadan krung si ayutthaya chabap somdet phra phonnarat wat phra chettuphon*. Bangkok : Khlang Witthaya.
- Rogers, Peter(1989). *A Window on Isan - Thailand's Northeast*. Bangkok : Duang Kamol.
- Rosenberg, Klaus(1986). *Sozialkritische Literatur in Thailand : Protest und Anklage in Romanen und Kurzgeschichten eines Landes der Dritten Welt*. Hamburg : Gesellschaft für Natur- und Völkerkunde Ostasiens e.V.
- Sanitsuda Ekachai(1991). *Behind the Smile : Voices of Thailand*. Bangkok : Thai Development Support Committee.
- Skinner, G. William(1957). *Chinese Society in Thailand : An Analytical History*. Ithaca : Cornell University Press.
- Somchai Phatharathananunt(2002). The Politics of the NGO Movement in Northeast Thailand. *Asian Review* 15.
- Stowe, Judith A.(1991). *Siam Becomes Thailand : A Story of Intrigue*. Honolulu : University of Hawaii Press.
- Suranart Khamanarong(1993). Village Industries : An Alternative Basis For Rural Development in North-East Thailand. *Proceedings of the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ai Studies*. London.
- Thomas, M. Ladd(1986). Communist Insurgency in Thailand : Factors Contributing to Its Decline. *Asian Affairs* 13(1).
- Titima Suthiwan & Uri Tadmor(1997). *Thailand : Land of Contrasts*. Honolulu : Center for South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 Vella, Walter F.(1957). *Siam Under Rama III 1824-1851*. New York : J. J. Augustin Incorporated Publisher.
- Wyatt, David K.(1984). *Thailand : A Short History*.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Regional Conflict in Thailand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Northeast Region

Cho Hung-Guk

(Assistant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so-called Isan issue in Thailand is related not only to the economic, but also cultural conflict between the northeastern (Isan) region and the central government. The Thai government has been since 1960s trying to integrate the Isan region into the nation-state of Thailand, particularly by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 in that region. However, the policy of integration which has been pursued since just a few decades is merely a political approach to the Isan problem which has a complex background. The Isan problem is to be understood against the background of political, economical, and cultural relations between the northeastern people, largely Lao, and the Central Thai (Siamese) which have a history of several centuries. More importantly, through the relations has developed the Isan identity, which has two faces – the Isan regional identity and the Thai national identity.

Key Words : Northeast Region, Isan Identity, Regionalism.